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 운영에 대한 교사의 경험 분석

임진형*, 김경미¹, 진미선²

¹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과, ²햇살어린이집

The Analysis on Teacher's Experience in the Operation of Outdoor Pla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e

Lim Jin-Hyung^{1*}, Kim Kyung-mi¹, Jin Mi-sun²

¹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eju Halla University

²Hatsal Day Care Cente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가 경험한 실외놀이의 의미와 어려움을 분석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바람직한 실외놀이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아교사 8명을 대상으로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의 의미, 실외놀이 운영의 어려움을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유아교사들은 신체발달을 도모하는 실외놀이, 소통으로서의 실외놀이, 에너지 발산으로서의 실외놀이, 자연과 함께하는 실외놀이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의 대·소 근육을 발달시키고 사회성 발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에너지의 발산과 자연과의 교감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둘째, 유아교사들은 여러 자료와 방법을 통해 유아들에게 의미있는 실외놀이 활동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실외놀이의 운영, 시간의 부족, 놀이지도 자질의 부족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외놀이의 운영에 대한 유아교사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실외놀이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실외놀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는데 의미를 시사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eachers' experience in the operation of outdoor play in a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e. For this purpose, the experience obtained in planning/operating the outdoor pla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es, as well as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in their operational process, were examined.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with eight early childhood teachers. In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the teachers' perception of outdoor play was analyzed. The teachers considered outdoor play as meaningful in that the children could develop gross/fine-motor skills, have the chance to develop their sociality, relieve their stress, and also commune with nature through outdoor play. Second, regarding the plan/operation of the outdoor play activities, even though they aimed to provide the children with meaningful outdoor play activities through various materials and methods, most of the teachers could not put their original plans into practice, because of the numerous variables in the actual site. The teachers' difficulties included insufficient time, spatial limitations, and insufficient qualifications for play instruction.

Keywords :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e, Outdoor Play, Value of outdoor play, Day Care Center Teacher, Early Childhood Education

1. 서론

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삶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

으며, 놀이는 단순한 유희의 의미가 아닌 발전의 의미가 있다[1]. 즉, 유아의 놀이는 환경을 탐색하며 자신의 역할, 가족 및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는 중요한 수

*Corresponding Author : Jin-Hyung Lim(Cheju Halla Univ.)

Tel: +82-64-741-7481 email: jhlim@chu.ac.kr

Received November 28, 2016

Accepted January 6, 2017

Revised (1st December 20, 2016, 2nd January 5, 2017)

Published January 31, 2017

단이 된다.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경험하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유아들은 놀이를 하며 신체발달, 언어발달, 사고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놀이는 유아기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2].

유아의 놀이 행동은 놀이 환경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3]. 그렇기 때문에 놀이가 보다 교육적이고 가치 있는 활동이 되기 위해서 실내놀이 환경과 실외놀이 환경을 정비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실외 놀이는 현대사회에서 영유아가 실내에서 벗어나 뛰놀고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면서 하루일과 중 중요한 시간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실내보다 넓은 공간에서 놀이가 이루어지면서 영유아에게 또 다른 놀이의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넓은 공간에서의 활발한 신체활동으로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성, 언어, 인지, 정서, 창의성 등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4]에서는 실외놀이 활동 시간을 보육일과 중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오전 또는 오후 일과 중 매일 1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5]에서 제시한 누리과정에서도 신체운동·건강영역의 하위내용으로 기본적인 운동과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활동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치원 평가에서도 평가의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실외놀이 공간이 협소하거나 갖추지 못한 기관도 있으며, 교사들은 실외놀이 보다 실내놀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6][7]. 즉 실내놀이 및 환경에 대한 계획과 구성만큼 실외놀이 및 환경의 계획과 조직에는 힘을 기울이지 못하며, 실외놀이는 주로 신체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어 교육적 중요성이 과소평가 되어왔다. 또한 실외놀이 활동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흥미, 환경적 요인 등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실외놀이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결국에는 계획과는 달리 실외에 있는 기구를 이용해 놀이하거나 유아가 자유롭게 놀이하라는 방법으로 실외놀이 시간이 운영이 되기도 한다[7][8].

최근 이루어진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 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실외놀이 시설 및 설비에 관련된 실태조사[9][10],

유아의 실외놀이 행동 및 경험[11]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교사가 인식하는 실외놀이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조사연구[7][8]가 많은 편이므로 교사의 인식과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유아교사들이 인식하는 실외놀이의 의미와 어려움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실외놀이 시간을 운영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외놀이의 의미와 어려움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실외놀이의 의미는 어떠한가?
- 둘째,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실외놀이 운영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방법

2.1.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A지역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8명이었으며,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의 의미와 어려움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Code	Work experience	Institute	Class
Teacher A	4 years	Kindergarten	3 year
Teacher B	3 years	Day Care Center	1 year
Teacher C	1 years	Day Care Center	2 year
Teacher D	1 years	Day Care Center	2 year
Teacher E	3 years	Day Care Center	5 year
Teacher F	4 years	Kindergarten	3 year
Teacher G	6 years	Kindergarten	3 year
Teacher H	3 years	Kindergarten	3 year

2.1.2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의 의미와 어려움을 알아보고자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

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목적을 설명하여 동의한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차 사전면담을 통해 면담과 관련한 질문을 나누어 주었다. 2차 면담에서는 1명당 20분-30분 정도의 시간동안 면담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에서 수집된 자료를 전사하여 추가적으로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3차 추가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정리된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각 자료의 내용을 요약해 주는 제목을 부호화 하여 하위 단위로 하는 소주제를 추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범주화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사례들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사례들이 갖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확인하고, 반복적인 수정과 재조명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실외놀이의 의미

3.1.1 신체발달을 도모하는 실외놀이

유아교사들은 실외놀이의 의미를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다양한 기구를 이용해서 대근육 등의 신체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단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애들이 뛰기 시작해요. 그 외에도 줄넘기, 축구, 미끄럼틀 타기 등 할 수 있는 대근육 활동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증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축구할 때는 공을 차면서 다리의 힘을 기를 수 있죠. 뭘 때는 그냥 뛰지 않고 잡기놀이나 멀리뛰기, 한발 뛰기 등을 하며 신체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어요. (G교사 만 5세 경력 6년차)

저는 일단 아이들이 신체발달을 위해서는 대근육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걸음마 연습할 때도 걸음마 연습을 많이 해야 빨리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애들이 대근육을 발달하기 위해서는 대근육을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끄럼틀 계단을 오르다거나 아니면 사다리를 올라간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대근육 발달을 할 수 있고 바깥에 나가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발달되는 것 같아요. (E교사 만 5세 경력 3년차)

반면, 실외놀이를 통해 대근육 뿐만 아니라 소근육도 같이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실외놀이터에 나가서는 유아들이 자유롭게 노는 시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구를 사용할 때는 유아들이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면서 기본적인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점에서 일단 대근육이 발달한다고 보고 또 바깥놀이에 나가면 모래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영역에서는 유아들이 모래를 만짐으로써 대근육뿐만 아니라 소근육도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F교사 만 5세 경력 4년차)

저는 발달 단계 중 영아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까운 공원에 가서 걷는단든지, 어린이집에 있는 동산을 오르락내리락 한다든지 하는 게 아이들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끄럼틀을 탈 때도 계단 오르고 손으로 잡고 내려오기도 하니까 대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자연물 같은 경우에는 큰 자연물도 있지만 돌이나 도토리처럼 작은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줌고 만지며 소근육도 발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B교사 만 1세 경력 3년차)

이처럼 유아들은 실외놀이 활동을 통해 걷기, 계단 오르기, 동산 오르기, 달리기, 한발로 뛰기, 공차기 등의 기본운동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유아들은 철봉, 미끄럼틀, 자전거 등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하거나 균형 잡기 등 신체의 각 부분을 움직이는 경험을 통해 대·소근육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겠다.

3.1.2 소통으로서의 실외놀이

유아교사들은 유아들이 실내놀이와는 다르게 실외의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활용하고, 자연물을 가지고 놀이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인 양보, 타협, 협동, 규칙 등을 습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솔직히 실내에서는 주어진 놀잇감으로 놀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물을 사용한다고 해도 제한적이고 저희가 제공해주는 것 밖에 없으니깐 오히려 더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런데 실외에서 아이들이 직접 찾아온 자연물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모양과 색깔을 비교하면서 “세모야.”, “이건 네모야.”, “내가 찾았어.”, “이건 동그라미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밖에 나가는 것 같아요. (B교사 만 1세 경력 3년차)

실외 공간에서 유아들은 혼자 개인적으로 놀이하기도 하지만 유아와 유아 간의 놀이, 유아와 교사 간의 놀이를 통해서 친사회적인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아들이 역할놀이를 하면서 “너는 엄마해.”, “난 아기 할래.” 와 같이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친목을 도모하게 되고, 소집단

이든 대집단이든 놀이를 하면서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들의 사회성이 발달한다고 봐요. (F교사 만 5세 경력 4년차)

실외놀이를 가면 제가 계획했던 놀이를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자유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애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는데, 저희반이 29명이라서 여러 가지 놀이를 제한해요. 그래서 송바꼭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놀이가 나오면서 애들이 각자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며 타협하는 모습이 보여요. (E교사 만 5세 경력 3년차)

이처럼 유아교사들은 실외놀이 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이 특별한 교구가 없어도 놀이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규칙을 정하며 사회성을 발달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축구에는 게임 룰이 있잖아요. 그 규칙 외에도 아이들끼리 만든 규칙이 있는데, 애들이 자기마음대로 하고 싶다가도 친구들과 정한 규칙, 원래 있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또 소꿉놀이를 할 때 보면 그 안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기네끼리 정하면서 유아들만의 규칙을 만드는 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도 보여요. (G교사 만 5세 경력 6년차)

예를 들면 아이들이 실외놀이터에서 자연물을 이용해서 음식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어떤 친구가 생일이었는데 “우리 이 음식들로 생일파티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자연물을 더 많이 모아오기도 하고 또 제가 소꿉놀이 세트를 같이 제공해주면서 생일파티처럼 놀이를 점점 확장해나갔어요. 마지막에 생일축하 노래도 부르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일파티를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았고 친구들과 같이 협력해서 해냈다는 기쁨도 느꼈던 것 같아요.

(H교사 만 4세 경력 3년차)

3.1.3 에너지 발산으로서의 실외놀이

유아교사들은 실외놀이를 통해 실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할 수 없었던 대근육을 활발히 움직이는 에너지 발산이 가능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유아들이 자유롭게 뛰고 소리를 마음껏 지르며 내재된 감정을 표출하며 즐거움과 건강한 정신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실외놀이를 통해 유아들은 잉여에너지를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인식했다.

저는 일단 실내놀이보다는 실외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

회가 되는 것 같아요. (A교사 만 3세 경력 4년차)

일단 유아들이 막혀있는 곳 자체가 아닌 넓게 트여 있는 공간에서 있는 자체가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 것 같고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D교사 만 2세 경력 1년차)

일단 교실에서는 규칙이 있고 또 한정적인 공간에서 놀이를 하기 때문에 실외보다는 자유롭게 못한 면이 있는데 실외에 나가서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뭐 놀잇감이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놀이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내재되어있던 감정을 표출한다고 생각합니다. (H교사 만 4세 경력 3년차)

3.1.4 자연과 함께하는 실외놀이

유아교사들은 실외놀이가 단순히 넓은 공간에서 뛰고 움직이는 대근육 활동에서 벗어나 계절과 날씨의 변화, 실외 주변에 있는 자연물 탐색 등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특성을 실외놀이의 중요한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단 실내는 좁고 놀잇감이 한정적인 반면 실외는 매일 다른 날씨를 느낄 수 있고, 각 계절마다 자연이 주는 놀잇감으로 유아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D교사 만 2세 경력 1년차)

저는 자연을 통해 영아들이 보고 느끼고 만지는 감각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실내에서는 오디오를 통해 다양한 소리를 듣는데 한계가 있지만, 실외에서는 바람소리, 새소리, 자동차소리 등 영아들이 다양한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잖아요. 또 산책을 하면서 맡게 되는 흙냄새, 거름냄새, 바다냄새 같은 것도 영아들에게 매번 신기하고 중요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B교사 만 1세 경력 3년차)

실외놀이 활동은 단순히 자연을 관찰하고 탐색하는 활동에서 벗어나 직접 텃밭을 가꾸고, 식물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한된 기관의 실외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범위를 넓혀 주변에 위치한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을 활용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실외놀이를 운영하고 있었다.

저희 놀이터 주변에는 자연물이 많이 있고 텃밭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반에 있는 텃밭에 물도 주고 잡초도 뽑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꽃인데 잡초인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소꿉놀이를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글자를 직접 만들어보기도 하고 돌을 던지면 서 땅따먹기에 활용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놀이에 복합

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미술이나 바깥놀이, 소꿉놀이 등 다양한 활동에 자연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G교사 만 5세 경력 6년차)

저희가 교실에 있는 소꿉놀이 교구를 공원으로 가져가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물을 모아서 생일상을 차리기도 하고 그런 놀이를 하기도 해요.

(H교사 만 4세 경력 3년차)

교사들의 실외놀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학급에 따라 교사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영아반을 운영하는 B, C, D교사의 경우에는 자연 자체에 의미를 두고 새소리, 바람소리, 흙냄새, 거름냄새, 주변의 여러 꽃 등의 자연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며 탐색하는 활동을 통해 영아들에게 감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반면 유아반을 운영하는 G, H교사의 경우에는 유아들이 텃밭을 가꾸고 자연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돌, 나뭇잎, 나뭇가지 등 여러 가지 자연물을 활용해서 글자 만들기, 소꿉놀이, 땅따먹기 등 다양한 놀이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2 실외놀이의 운영에 있어 교사의 어려움

3.2.1 계획과 일치되지 않는 실외놀이 운영

유아교사들은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며 실외놀이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변수에 부딪혀 계획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실제로 계획한 활동을 유아들이 바깥놀이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계획은 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저희 교사들은 실내놀이에서 관련된 활동도 준비해야 하고 바깥놀이터에서 하는 활동들도 준비해야 되는데 우선은 교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실내놀이 중심으로 활동을 준비하게 되고, 실외놀이에 관련된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다보니깐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자료를 만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깥놀이터에 나가게 되면 유아들이 그냥 자유롭게 노는 시간이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A교사 만 3세 경력 4년차)

저희가 아이집이나 파라슈트 이런 걸로 계획은 차질 없이 다 하는데 이제 아이들을 막상 데리고 나가면 변수가 많이 생겨요. 실외놀이를 할 때 애들 집중시간도 짧고 여러 명의 영아들을 데리고 활동하다 보니 교사가 모든 영아들을 통제할 수 없어서 제대로 활동을 하기 힘들어 자유놀이를 해요. (B교사 만 1세 경력 3년차)

주로 계획하는 것 보다는 매번 그 주제에 맞게 변경은 시키고 있는데, 거의 실행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도 실행 계획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은 계획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나뭇잎으로 하는 활동이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제안을 해보긴 하는데 “선생님이 해주 해주.” 라고 하지, 자기네가 할 생각은 안하는 거예요. “해보자 해보자.” 하기는 해도 별로 흥미 없어 하는 모습이 커가지고 다시 시도하기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D교사 만 2세 경력 1년차)

3.2.2 시간의 부족

유아교사들은 실외놀이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내에서 실외공간의 이동과정, 실외활동 계획을 위한 자료의 준비 등 시간의 부족을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영아반의 경우는 실외로 이동할 때 신발을 신고 벗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다보니 활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실내 자유선택활동 및 대소집단 활동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실외 놀이 활동을 위한 자료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활동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저희 반은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실외놀이를 나갈 때 신발을 한명, 한명 신겨주어야 하고 또 실외놀이가 끝나서 들어오는데 신발을 벗기다 보면 실질적으로 실외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인력이 보충되었으면 좋겠고 시간적 여유가 생겨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B교사 만 1세 경력 3년차)

저희 교사들은 실내놀이에서 관련된 활동도 준비해야 하고 바깥놀이터에서 하는 활동들도 준비해야 되는데 우선은 교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실외놀이에 관련된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다보니깐 자연스럽게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자료를 만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결국에 바깥놀이터에 나가게 되면 유아들이 그냥 자유롭게 노는 시간이 되어버려 의미 있는 실외놀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F교사 만 5세 경력 4년차)

3.2.3 공간의 제약

유아교사들은 실외놀이 활동을 통해 유아의 신체 발달, 사회성 발달, 스트레스 해소, 자연친화적 감성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실외놀이 활동 공간이 넓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반면에 공간이 비좁아 활동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기관 내에 실외놀이 공간이 없는 경우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놀이터, 공원 등을 이용한 실외놀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유아들이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근육도 조절하며 힘을 많이 키워야 하는 때인데, 제가 아이들한테 안전문제로 제한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원이 우레탄 바닥 아니면 시멘트 바닥이어서 제가 계획할 때는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은 하는데 실제로 활동을 하다 보면 안전에 대해 우려가 되니까 우레탄 바닥이 있는 쪽으로 제한을 두게 되죠. 아이들이 더 뛰고 싶은데도 제가 안전한 곳으로 뺄 수 있도록 제약적인 환경을 만들게 되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공간의 협소로 인해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A교사 만 3세 경력 4년차)

저희 반 29명이 함께 놀이기구에는 어린이집 실외 놀이공간이 너무 좁아서 다양한 활동이 소집단으로 한꺼번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활동에 한 번씩 참여해주는 싶은데 그러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관찰자로서 지켜보거나 아니면 애들이 부르는 놀이에만 참여해요. (E교사 만 5세 경력 3년차)

3.2.4 놀이 지도 자질의 부족

유아교사는 실외놀이 활동에 있어 유아들의 주의집중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고, 실내놀이와 연계된 실외놀이 지도 자질의 어려움과 인식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초임교사라서 그런지 영아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고 흥미를 끌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두 담임이고 하다 보니 경력 선생님이 놀이를 주도할 때, 주로 옆에서 보조역할을 해요. 만약에 소그룹으로 곤충을 관찰하는 영아들에게 다가가서 곤충에 대해 더 흥미를 보일 수 있게, 탐색할 수 있게 상호작용을 하는 편입니다. 또 저희 반이 영아다 보니 아이들의 안전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라서 안전에 대해 어려움도 있어요. (C교사 만 2세 경력 1년차)

매번 실외활동을 계획하고 영아들에게 적응은 하지만 교사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영아들이 충분히 흥미 있어 할 수 있도록 주의 집중을 한다거나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D교사 만 2세 경력 1년차)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외놀이의 의미와 어려움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실외놀이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유아교사들은 실외놀이를 ‘유아의 신체발달을 도모하는 실외놀이’, ‘소통으로서의 실외놀이’, ‘에너지 발산으로서의 실외놀이’, ‘자연과 함께하는 실외놀이’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외놀이는 유아의 신체, 사회·정서, 인지 발달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인적 발달의 측면과 관련이 있다. 실외놀이 활동은 유아의 인지, 사회, 정서, 창의성 및 신체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12]. 이러한 결과는 실외놀이 활동은 유아 주도적인 흥미와 이에 기초한 경험적 활동을 제공하며, 다양한 놀이기구의 사용을 통해 대·소근육의 발달, 눈과 손의 협응력, 사회적 관계, 언어 발달, 사물에 대한 명명, 추상적 사고, 과학적 지식 획득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13][14][15]와 연결된다. 또한 실외놀이는 다양한 사회관계를 맺게 해주고 유아에게 휴식을 제공하며 즐거움을 준다[9]. 유아들은 실외놀이 시간동안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다양한 기구를 이용해서 놀이하러 대근육을 움직이고 조절할 수 있다. 유아들은 실외놀이를 통해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유아, 유아-교사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인 양보, 타협, 협동, 규칙 등을 습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절과 날씨의 변화, 주변에 있는 자연물 탐색 등 자연과 교감할 수 있다는 특성을 실외놀이의 주요한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실외놀이를 통해 유아들이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실외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요성을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실외놀이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내재된 감정을 표출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과 건강한 정신을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둘째, 유아교사들이 인식한 실외놀이 운영의 어려움은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위험요소, 놀이기구의 부적합에 따른 안전문제로 공간의 협소, 실외놀이 프로그램의 부족이었다. 또한 부모들이 실외놀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유아들이 다치게 되었을 때의 상황이 두렵다고 하였다. 실외놀이를 하다보면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아들을 통제하기 힘든 어려움과 다양한 실외놀이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외놀이를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시간의 부족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실외놀이 활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실외 활동을 위한 자료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공간의 제약과 관련하여 실외놀이 공간이 너무 넓어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공간이 비좁아 활동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놀이터, 공원 등을 이용한 다양한 실외놀이 활동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10][11][12]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사들은 실외놀이 활동에서 유아들의 주의집중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유아교사들이 실외놀이가 유아의 소중한 삶의 한 부분이며, 즐거움과 행복한 경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활동이라는 의미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실외놀이 활동 지도를 위한 자질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교사의 면담을 토대로 이루어졌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관찰, 계획안 등도 활용하여 실제 운영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A지역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 교사 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력, 기관 등이 포함된 표집을 통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실외놀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논의된 사항과 관련하여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외놀이 운영을 위한 교사의 역할, 실내놀이와 연계된 실외놀이 프로그램 등 효율적인 실외놀이 운영 방법에 대한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들의 실외놀이 운영에 대한 경험 분석을 통해 실외놀이의 의미와 어려움을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향후 효과적인 실외놀이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childhood education. Jung-Min-Sa, 2014.

- [3] Korea Child Care Promotion Institute, The Korean National Day Care Curriculum, 2015.
- [4] Ministry of Education, 2015 The Korean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2015.
- [5] S. K. Kim, A Quantitative & Qualitative Analysis on the Realities of Outdoor Play in the Pre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General Graduate school, 2000.
- [6] J. S. Kim, A study of Kindergarten Outdoor Play equipments and program : mainly focused on public kindergarten in Seoul,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2.
- [7] H. J. Kim, The Actual Conditions and Teacher's Perception of Outdoor play in Kindergarten and Day Care Center, Wonkw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2.
- [8] E. H. Kim, J. H. Ryu,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s of Outdoor Play Meanings and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Outdoor Activities and the Methods How to Activate Outdoor Play, The Korea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vol. 16, no. 4, pp. 27-52, 2012.
- [9] M. R. Jung, S. K. Kang, The study of the safety of outdoor playground. 16(5),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pp. 249-268, 2011.
- [10] M. K. An, J. H. Lee, Conditions and Uses of Outdoor Playgrounds for Infants and Toddlers in Corporate-Sponsored Child Care Cente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4, no. 3, pp. 225-243. 2007.
- [11] J. J. Han, J. H. Yun, A Qualitative Study on Young Children Outdoor Play Experience: Focusing on Playground Equipment, vol. 31, no. 5, pp. 155-181.
- [12] J. M. Kim, A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for Outdoor Play Activation In the Educational Institution for Children,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4.
- [13] I. J. Seo, Young children's Play Behavior in Indoor and Outdoor Playgrounds,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6.
- [14] H. S. Jee, Management Condition and Teachers' Perception on Outdoor Play Facilities for Young Children in Child Care Centers, Kyung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2.
- [15] S. E. Lee, D. J. Shin, Guidelines for Developing Programs to the Activation of Outdoor Pla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Korea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vol. 12, no. 2, pp. 147-169, 2008.

References

- [1] D. J. Shin,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Outdoor Play in Kindergartens and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s of Outdoor Play.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p. 299-324. 2004.
- [2] C. Y. Park, N. M. Jung, H. J. Kwak, Play and early

임 진 형(Jin-Hyung Lim)

[정회원]



- 199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문학석사)
- 201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문학박사)
- 2000년 3월 ~ 2004년 2월 : 우송정보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 2004년 3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사교육, 유아교육교수법

김 경 미(Kyoung-Mi Kim)

[정회원]



- 2012년 3월 ~ 2015년 2월 : 제주어린이집 교사
- 2016년 2월 : 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학사
- 2016년 3월 : 제주한라대학교 교직원

<관심분야>

유아상호작용, 놀이지도

진 미 선(Mi-Sun Jin)

[정회원]



- 2016년 2월 : 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학사
- 2016년 3월 ~ 현재 : 햇살어린이집 교사

<관심분야>

유아상호작용, 영유아교수법